대학원생세미나 12.09. 27

리딩: 1. 레비-스트로스,『슬픈 열대』(한길사, 2004).(발제: 용채영)

2.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 레비-스트로쓰, 라캉, 푸코, 알튀세르에 관한 연구』(인간사랑, 2008) (발제: 송지예)

<토론>

송지예: 친족구조, 구조화 되서 보여줌. 여성교환으로 체계가 만들어진다. 정치학에서는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나? 정치학은 교환형태 자체? 국가들 간의 관계, 교환도 있지만 전쟁도 있고. 약간 구조주의적 방법론으로 그릴 수 있나?.

도종윤: 단위들, 구조들을 다 넣고 야콥슨처럼 이야기. 행위소 이론 등. 수신자-발신자-영향 주는 사람 정리함. 국가를 넣으면 다 맞는데. 이도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으로는 model이 있음. 속성은 다 알 수 없지만 구조주의가 매력은 있는데 모델로만 끝나버리는 것인가? 시니피엥/시니피앙도 차이. 기표/기의가 주고 받지만 보이지 리쾨르는 reference가 있다고 함. 결국 코끼리라는 말이 있고, 코끼리가 상상에 있다면 상상적 시니피에-시니피앙임. 이 reference를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의 관념 속의 구조만 이야기하냐? 구조는 맨날 말로 하는 코끼리와 머리의 코끼리 이야기. 그러나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불명확.

옥창준: 라캉, 라캉, 상징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의 자아의 투쟁들이 있음. 그런 구도들은 신생국가, 국가형성 과정. 국제질서의 편입과정 속에서 오는 걸 보는데 시사점 주지 않나? 라캉이 있는 ISR의 구도. 실재계-상상계..

도종윤: 언어학의 구조주의도 한계가 있음. 주어-목적어-서술어가 있으면 국제정치는 그게 고정됨. 관계를 보지 주어는 고정됨. 만약 주어가 어느 하나의 국가라고 하면, 행위자라면 국제정치에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어가 서술어가 되는 변태과정이 있을 수 있음.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다른 position, 능력, 어느 순간 주어가 서술어가 되는 과정? 주어-서술어로 변환이 아님. 구조주의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안 됨. .

전재성: 잘 짜여진 추상적 체계에서 직접 경험적 세계로 들어가서 구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있었던 듯. 국제정치에서 구조주의적 사유법이나 모형틀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별 의미가 없음. 실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다 확인하고 와야 함. 그럴려면 국제정치에서의 폭력의 문제, 경제나 identity의 문제를 그 안에서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구조주의적 생성론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층위가 필요함. First-image에서 third image로의 연결. 인류학은 가장 단순한 인간관계, 인간이 복잡해지기 전의 원형의 모습을 보고자 함. 기호학적 환원이 단순한 것. 21세기 국제정치는 이미 복잡한 층위가 됨. 국제정치를 만들고 있는 주어, 구조들의 실제 작동을 알아 내야 한다는 것. 전쟁 등. 전쟁의 고고학, 폭력의 고고학. 애초의 전쟁이 왜 생겼을까? 부족간 전쟁의 패턴? 지금의 전쟁은 복잡해짐. 그런 지금의 복잡성에도 폭력의 구조적인 법칙성이 있는지? 국제정치는 multi-level의 multi-issue가 있음. 구조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메타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제정치에서의 폭력은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임. 듀드니, 맑스주의의 구조주의적 폭력 설명이 있는데, 이와 월러스타인, 맑스 계열이 이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잘 설명 못함. IPE-security의 문제. 국제정치 너무 복잡화, 이를 분석하려면 너무 많은 층위의 구조주의의 설명. 정말 국제정치를 구조주의로 설명하려면 어려움이 있음.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슈미트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우/적의 구분이라고 함. 필연적인 의식구조에서 우/적 구조다. 권력적 결단이 그렇게 밖에 못한다. 결단 곧 폭력, 신속하게 결단 내리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 First-image, 인간 의식의 정치적 본질의 구조가 있다면. 비슷한 류의 구조가 있는 것임.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것, 기든스. 이를 재생산, 바꾸는 주체의 능력도 있다. Agent-structure의 사회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주체는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의식의 자율성이 있다는데. 구조주의자들은 의식의 자율성도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음.

용채영: 인간 집단들 사이의 구조, 개인들 간 관계의 구조가 국제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부족들 간의 상호교환, 동의의 구조가 국제정치 구조에도 바로 연결되는가?

전재성: 인간 사회의 동의에 의한 사회질서가 국제정치에도 적용되나? 실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여러 친족구조, 보이지 않는 규범 위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있음. 국가 간에도 보이지 않는 social understanding이 있다는 것이고, 지역 체제 간 내재적. 그렇지만 그것이 같은 내용의 것일까? 맞는 질문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함. 하지만 주권도 사회적 구성의 부분도 있으므로. 아나키로 보여도 결국 authority의 구조다. 월츠보단 영국 사회학파, 구성주의가 레비 스트로스와 가까울 수 있음. 단순한 물질적 배치 속의 구조주의 보다는 상호 합의된 국제관계 이야기를 하므로. 그러나 실제 그게 있냐는 arguable함.